

##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 연구

최지녀(서울대)

1. 머리말
2. 「열녀함양박씨전」의 전(傳)으로서의 창신(創新)
  - 1) 서(序)의 도입
  - 2) 본전(本傳)의 서술방식
3. 열녀(烈女)의 형상과 그 의미
  - 1) 열녀의 형상화
  - 2) 열(烈)을 보는 시각
4. 맺음말

### 1. 머리말

「열녀함양박씨전」은 일견 모순적인 텍스트이다. 하층의 여성까지 기꺼이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 수절과부로 정욕을 누르며 살아온 노년 여성의 솔직한 고백, 부부의 연을 맺어보지도 못한 남편의 삼년상을 치르고 목숨을 끊은 하층 여성의 열(烈)에 대한 칭송은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며 때로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이른바 ‘서’(序)와 ‘본전’(本傳)<sup>1)</sup> 사이의 표면적 모순으로,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암의 주제의식은 대체로 서, 특히 수절과부의 일화에 담겨 있으며 함양 박씨의 사건은 열녀 풍속에 대한 문제의식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리라는 견해가 많았다. 다시 말해 함양 박씨에 대한 칭송은 표면적이거나 부분적인 것, 혹은 방어적인 것이며 직설적인 비판을 피하고자 연암의 의도에 따라 서가 병설(并設)되었고 그 서를 통해 순절을 비판하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sup>

「열녀함양박씨전」에서 서가 본전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며 여기에 연암의 의도가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서 자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서와 본전의 관계이며, 작품 전체의 형식적 새로움과 내용 사이의 관계이다. 선행연구의 업적들은 대개 연암의 주제의식, 곧 열녀 풍속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연암이 열녀 풍속에 대해 얼마나 어떻게 비판적인가’를 규명하는 데에 주로 집중하고 있거나,<sup>3)</sup> 형식적인 새로움에 관심을 두더라도 이 형식적인 새로움과 연암의 문제의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sup>4)</sup>

1) ‘序’와 ‘本傳’의 구분에 대해서는 2장 1절 참조.

2) 김철조, 『박지원의 산문문학』,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323~325면; 박일용, 「〈烈女咸陽朴氏傳〉의 형상화 방식과 그 장르적 성격」,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양포이상택교수환력기념논총간행회, 집문당, 1998, 575~587면 참조.

3) 연암 연구의 선편을 잡은 연구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가원이 「〈烈女咸陽朴氏傳〉 연구」, 『燕巖小說研究』, 을유문화사, 1965, 743면에서 작품의 주제를 “制限 없는 節烈思想의 止揚”으로 본 이래로, 「열녀함양박씨전」의 주제는 ‘과부의 수절에 대한 비판’이라는 범주 안에서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근래의 연구 가운데 김철조, 위의 책, 313~314면의 “이 작품의 주제는 「烈女咸陽朴氏傳」이라는 제목의 외피에도 불구하고, 앞의 서문부분에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언급으로 대표된다.

4) 형식에 대한 논의는 주로 「열녀함양박씨전」이 전, 소설 혹은 수필 가운데 어느 장르에 속하느냐하는 점과 관련해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이 작품의 초점이 수절과부 이야기에 있다고 본 연구자는 이 작품을 소설로 보려는 경향이 강했고, 박씨 이야기에 있다고 본

이에 본고에서는 「열녀함양박씨전」이 서의 병설과 본전의 새로운 구성을 통해 전(傳)의 장르적 경계 내지 전통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전으로서의 창신이 열녀 풍속에 대한 연암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작품의 형식적 특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열녀에 대한 연암의 관점을 해명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과 의미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2. 「열녀함양박씨전」의 전(傳)으로서의 창신(創新)

### 1) 서(序)의 도입

「열녀함양박씨전」은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 안의현감(安義縣監)으로 재직하고 있던 1793년 또는 그 직후에 창작한 작품으로, 안의 아전의 조카인 박씨가 순절한 일을 견문하고 쓴 것이다. 「열녀함양박씨전」은 「열녀함양박씨전 병서」라는 제목으로 통하기도 하는데,<sup>5)</sup> 이는 “烈女咸陽朴氏傳”이라는 제목 뒤에 “并序”라는 세주(細注)가 붙어있기 때문이다.<sup>6)</sup> ‘병서’란 말 그대로 어떤 글에 서문이 나란히 달려 있음을 뜻한다. 제목에 병서라는 표현을 명기(明記)한 글은 전근대의 중국과 한국의 문헌에서 두루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 서는 주로 쓰고자 하는 글에 대한 참고사항이나 글의 창작 경위를 그 내용으로 한다. 서문의 대상이 되는 글은 대개 시(詩)·명(銘)·애사(哀詞)·부(賦)·송(頌) 등의 운문으로, 서에는 주로 이들의 창작 배경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병서라는 말을 제목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작품에 대한 부연 설명을 문두(文頭)에 산문으로 기술한 경우도 많으므로, 이른바 병서의 형식은 운문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산문의 경우는 굳이 병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내용을 부연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함축적이고 지시대상이 모호할 수 있는 운문에는 때때로 산문적인 부연이 필요했겠지만 산문은 필요한 내용을 본문에 삽입하거나 문두에 부기하는 것이 순위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문의 제목에 명시적으로 병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sup>7)</sup> 특히 전에서는 입전동기의 서술이나 논찬을 통해 창작의 경위를 밝힐 수 있고, 행적부에서 입전인물을 소개할 수 있으므로 ‘서’의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연암은 함양 박씨의 전에 서를 붙여 작품의 외연을 확장하는 독특한 시도를 하고 있다. 「열녀함양박씨

연구자는 이 작품을 전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했다. 박일용, 574면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지적하며 두 과부의 이야기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적절히 지적하였으나 서에 해당하는 부분과 두 과부 이야기 사이의 관계 및 그 관계가 주제와 맺는 관련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개별 선행 연구에서 작품의 구성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점은 아래의 각주 8번에서 밝힌다. 채언이긴 하나 본고에서는 「열녀함양박씨전」을 전으로 다룬다는 점을 밝혀둔다.

- 5) 연구자에 따라 세주의 내용을 밝혀 「열녀함양박씨전 병서」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나 이 작품에서 서가 가지는 독특한 기능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제목은 「열녀함양박씨전」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한다.
- 6)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저본은 박영철이 편한 『燕巖集』(1932)이며, 이 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이본으로는 『연암제각기』(燕岩諸閣記: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본), 『백척오동각집』(百尺梧桐閣集: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자연경실본(自然經室本: 송실대 소장본), 한씨문고본(韓氏文庫本: 연세대 한씨문고 소장본), 승계본(勝溪本: 국립중앙도서관 승계문고 소장본), 용재문고본(庸齋文庫本: 연세대 용재문고 소장본), 망장장재본 갑(莽蒼齋本 甲: 임형택 교수 소장본), 망장장재본 을(莽蒼齋本 乙: 임형택 교수 소장본), 『담총외기』(談叢外記: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기담총화』(奇談叢話: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등이 있다. 작품의 제목은 『연암제각기』와 『담총외기』에는 「烈女傳」으로, 『백척오동각집』에는 「朴烈婦傳」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이본에는 제목이 모두 「烈女咸陽朴氏傳」으로 되어 있고 「并序」라는 세주가 붙어 있는데, 목차의 제목에는 세주가 노출되어 있지 않다.
- 7) 기대승(奇大升)의 『고봉집』(高峯集) 속집 권2에 실린 「삼해」(三解)라는 글에 ‘并序’라는 세주가 붙어 있고 짧은 서(序)가 달려 있는 정도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서 또한 글의 창작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첫 부분을 들면 다음과 같다: “나는 집안에 일이 많아서 봄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허물로 여겨 시비하는 말이 길에 그득하다. 내가 직접 해명할 수가 없어 이 삼해를 지어 나의 뜻을 밝힌다”(余以家事多, 不赴春闈, 人皆尤之, 是非盈路, 余無以自解, 作『三解』, 以道余志).

전」의 서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바, 작품의 내용은 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sup>8)</sup>

- (가) 현재의 열녀풍속: 齊人有言曰~豈非過歟
- (나) 수절과부 이야기: 昔有昆弟名宦~無以見殊節於寡婦之門
- (다) 함양박씨 이야기: 余視事安義之越明年癸丑月日~豈非烈也

여기서 (가)와 (나)는 서에 해당하고 (다)는 본전에 해당한다.<sup>9)</sup> (가)는 귀천(貴賤)과 미현(微顯)을 막론하고 과부들이 순절(殉節)하는 조선의 풍속을 완곡하게 비판한 내용이고, (나)는 평생을 수절한 과부가 아들에게 젊은 시절 정욕을 누르던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이며, (다)는 함양 박씨가 남편의 삼년상을 마치고 순절한 일을 기술했고 예찬한 내용이다.

분량만으로 본다면 「열녀함양박씨전」에서는 서와 본전의 비율이 거의 대등해 상대적으로 본전이 조금 위축된 느낌을 준다. 게다가 (가)와 (나)는 일반적인 ‘병서’ 형식에서의 ‘서’와 같이 함양 박씨의 이야기를 보조하는 내용이기보다는 오히려 함양 박씨의 이야기와 대조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순절의 풍속이 하층 여성에게까지 퍼진 것은 지나치다는 (가)의 입장과 아전의 조카로 하층 여성에 해당하는 박씨의 순절을 찬양한 (다)의 입장이 어긋나 보이며, 정욕을 억누르며 수절하는 고통을 토로한 (나)의 과부와 부부관계도 한 번 가지지 않은 남편을 따라 죽은 여성인 (다)의 박씨가 사뭇 대조적인 것이다. 게다가 수절과부의 이야기는 과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여성의 정욕과 그것을 억누르는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어 본전으로 끌려야 할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조차 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생각한다면 「열녀함양박씨전」의 서가 본전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조한다고는 볼 수 없다. 애초에 서를 병설한 사실 자체가 그러하거나 연암이 서를 본전의 단순한 도입부나 안내자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연암이 글 전체를 치밀한 안배 위에서 서술했다고 할 때,<sup>10)</sup> (가)의 규범적 서술과 (나)의 수절과부의 일화, 그리고 (다)의 함양 박씨의 전은 모종의 내적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서는 글의 주제를 확충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후술하겠으나 (나)의 수절과부 일화는 본전을 보조하며 본전과 상호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전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읽힐 수 있다. 즉 (나)와 (다)가 각기 독립적인 열녀의 이야기이면서 둘이 결합한 「열녀함양박씨전」이 다시 두 열녀의 이야기로 읽힌다는 것이다.

가령 『담총외기』에는 이 작품이 「열녀전」이라는 제목 하에 서에 해당하는 부분, 즉 (가)와 (나)만 실려 있다. 이는 (나)의 수절과부 이야기가 함양 박씨의 이야기와는 별도로 하나의 열녀전으로 성립하여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연암제각기』에는 (가), (나), (다)를 모두 갖춘 작품이 「열녀전」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이는 「열녀함양박씨전」이 상호 연관된 두 열녀의 이야기라는 맥락에서 독자에게 읽히고 향간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요컨대 이 작품에서 서는 본전을 특수한 방식으로 보조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작품으로서의 의의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 역시 「열녀함양박씨전」이 서를 도입하면서

8) (나)와 (다)의 논찬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나)', (다)'로 지칭할 때, 이가원은 명칭 없이 (가), (나)(나)', (라), (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성현경, 「<烈女咸陽朴氏傳>과 <烈女咸陽朴氏傳 并序>의 構成」, 『韓國古典散文研究』, 동화문화사, 1981, 264면과 설성경, 「烈女咸陽朴氏傳 并序의 구조」, 『고소설 연구』2, 태학사, 1998, 336면에서는 (가)(나)(나)'를 서로, (라)를 본전으로, (라)'를 평(評)으로 보았으며, 박기석, 「<烈女咸陽朴氏傳>연구」, 『국어교육』 111집, 국어교육학회, 1993, 356면과 김혈조, 313면에서는 (가)(나)(나)'를 서로, (라)(라)'를 본전으로 보았다. 또 박일용, 588면에서는 작품을 (가)(나)-(나)-(라)(라)'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다.

9) 『담총외기』를 제외한 모든 이본에서 '서'와 '본전'은 행갈이가 되어 있다.

10) 연암의 안배는 사소한 점이긴 하나 가령 (가)와 (다)의 끝을 각각 '豈非過歟', '豈非烈也'라는 유사한 문형의 표현으로 맺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여주는 새로운 면모라고 할 수 있다.

## 2) 본전(本傳)의 서술방식

「열녀함양박씨전」은 서를 통해 외연을 확장하는 변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본전 자체에서도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아래에서는 전 내지 열녀전의 일반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러한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본전에 해당하는 부분인 (다)를 다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① 안의현 아전 박상효의 조카딸이 과부로 지내다가 남편의 삼년상을 마치고 약을 먹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余視事安義之越明年癸丑月日~余命之疾去)

② 저녁 무렵에 과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아전들을 불러 저간의 사정을 들었다. 여러 아전이 ‘박씨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조부모의 슬하에서 자랐으며, 열아홉에 임술증에게 시집을 와서 남편이 곧 죽었지만 며느리와 아내로서의 예를 다하였다’고 말했다. 늙은 아전이 ‘임술증의 병을 알고 조부모가 혼인을 만류했으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제대로 된 혼인생활이 아니었다’고 말했다.(及晚~其實竟守空衣云)

③ 함양군수 윤광석 등이 이 여인을 입전하였다. 과부가 목숨을 끊은 것은 친척의 동정을 받고 이웃의 혐의를 받기를 꺼리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처음의 기약을 지키고 죽었으니 열렬한 사람이다.(既而咸陽郡守尹侯光碩~豈非烈也)

위의 내용을 통해 보면 본전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박씨에 대한 기술은 여타의 열녀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가령 “박씨 여인이 남편의 상을 치러 그 예를 다하였고 시부모를 모셔 그 며느리 된 도리를 다하자 양육의 친척과 이웃들이 그 훌륭함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보아도 과연 그렇습니다”<sup>11)</sup>라는 아전들의 말은 열녀의 행실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또 “혼인 날짜가 임박하자 여인의 집에서 사람을 시켜 술증(述曾)을 슬쩍 보고 오라고 시켰는데, 술증이 생기는 잘생겼으나 병에 시달려 기침을 하는 것이 버섯이 서 있고 그림자가 걸어 다니는 것 같더랍니다. 여인의 집에서는 덜컥 겁이 나서 다른 곳으로 혼인을 정하려했는데 여인은 정색을 하고 ‘접때 지은 옷은 누구의 몸에 맞춘 것이고 또 누구의 옷이라고 부르던 것입니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지은 옷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더랍니다”<sup>12)</sup>와 같은 늙은 아전의 말 역시 열행(烈行)을 드러내는 에피소드와 대화를 삽입한 것으로 열녀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열녀전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이채롭다. 대개의 전에서 작자는 입전인물과 관련된 사실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면서 글 전체를 장악하는 권위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혹은 제3자적 입장에서 정황을 제시하는 서술자로 나서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통해 전해들은 사실을 서술할 경우에도 사실을 접한 정황을 도입부나 논찬부에서 밝힐지언정 행적부에서는 작자가 전지적 서술자가 되어 내용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 그런데 본전에서 연암은 박씨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여러 아전[群吏]의 입을 통해 전해 듣고 있으며 동시에 모든 사실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여인의 나이는 몇이고, 함양의 누구에게 시집을 갔으며, 어렸을 때의 마음씨와 행실은 어떠하였는지 너희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sup>13)</sup>라는 연암의 질문은 인정기술(人定記述) 및 행적부의 내용을 여러

11) “朴女執夫喪，盡其禮；事舅姑，盡婦道。兩邑之親戚鄰里，莫不稱其賢，今而後果驗之矣。”(박영철본 『연암집』 권3, 이하 동일)

12) “盡退期，其大父母密諷其女，女默不應。迫期，女家使人覘述曾，述曾雖美姿貌，病勞且咳，菌立而影行也。家大懼，擬招他媒，女歛容曰：‘曩所裁縫，爲誰稱體，又號誰衣也?’女願守初製。”

13) “女年方幾何，嫁咸陽誰家，自幼志行如何，若曹有知者乎?”

아전의 답을 통해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리하여 본전의 내적 화자는 아전들이 되고, 행적부는 다른 부연 없이 한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으로 끝난다.<sup>14)</sup>

물론 전에서 대화의 기법을 통해 행적부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 역시 상당히 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의 대화가 노리는 효과는 대화를 통해 입전인물의 개성이나 정신세계를 더 잘 드러내는 것이다. 즉 대화는 입전 인물과 그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화의 중심에는 입전인물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전에서와 같이 제3자들의 대화를 통해, 정확히 말해 여러 사람의 보고의 형식으로 입전인물이 형상화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유일하게 박씨의 목소리로 등장하는 ‘접때 지은 옷은 누구의 몸에 맞춘 것이고 또 누구의 옷이라고 부르던 것입니까?’라는 말은 말 속의 말로 나타날 뿐이다.

이러한 기법이 사용된 것은 연암이 박씨에 대해 전지적 관점에서 서술하기를 회피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연암은 박씨의 사연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확정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다. 연암은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하고 재구하여 새로운 전을 집필하지 않고 자신이 사건을 견문한 경위 자체를 전의 내용으로 삼았다. 그래서 ①의 내용은 박씨의 사연으로 들어가는 도입액자이면서도 액자 내부와 그대로 연결된다. 사건을 처음 들었던 정황을 기술한 부분과 박씨의 신변과 행적을 기술하는 부분 사이에서 작자 연암이 퇴장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적인 전을 논찬부를 액자로 하는 개방형 액자라고 할 때, 「열녀함양박씨전」의 본전은 연암과 아전의 대화 속에 다시 박씨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삼중의 액자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다소의 시간 역전은 있다 하더라도 대개 연대기적으로 서술되는 전의 ‘시간’이 교란되는 결과를 낳았다. 가장 외부의 액자이자 논찬부인 ③이 현재 시점이라면, 가운데 액자이자 박씨가 위독에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인 ①은 직전의 과거이다. 그리고 가장 내부의 액자이자 여러 아전의 말을 통해 박씨의 가계와 유년기, 혼인, 남편의 죽음 등의 과정이 비로소 연대기적으로 기술되는 ②는 ‘대과거’이다. 다음으로 늙은 아전이 전하는 혼인 전후의 에피소드는 대과거 안에서 가볍게 역전된 시간에 해당한다.

결국 본전은 삼중의 액자를 통해 박씨의 삶을 재구하면서 대체로 시간을 역전시킨 구성을 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이 과정에서 연암은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한 사람의 열녀가 구성되는 과정을 지켜 보고 전달하고 있다. 작자의 권위적인 목소리를 버리고 사건이 전달되는 정황 자체를 전으로 만들어 다양한 시간과 관점이 끼어들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작품의 주제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바 후술하기로 한다.

### 3. 열녀(烈女)의 형상과 그 의미

#### 1) 열녀의 형상화

이제 두 열녀의 형상화 방식과 그들의 관계에 주목해 보도록 하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와 (다)는 주제에 있어 표면적으로 대비된다. 뿐만 아니라 (나)의 수절과부와 (다)의 박씨가 처한 상황, 그리고 두 사람을 묘사하는 방식 역시 많은 점에서 대비된다. 우선 수절과부는 목숨을 끊지 않고 수절(守節)하였으며, 박씨는 남편의 삼년상을 치르고 순절(殉節)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한편 수절과부는 관리로 이름난 두 아들

14) 전의 ‘인정기술(人定記述)-행적부-논찬’의 3단 구성 및 각각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研究』(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21면 참조.

15) 전에서의 액자 구성에 대한 내용은 박희병, 앞의 책, 117~122면 참조. 본전에서의 시간 역전에 대해서는 김철조, 앞의 책, 323면에서 간단한 언급이 있었고, 전연의 형식으로 박씨의 행적이 기술된 사실에 대해서는 김철조, 앞의 책, 323면; 박일용, 앞의 글, 587면에서 사실의 지적과 분석이 있었으나 분석의 내용은 본고와 상이하다.

을 둔 노년의 여성으로 지체 높은 양반가의 부인이다. 반면 박씨는 남편과는 명목상의 부부였을 뿐인 스물 두셋의 젊은 여성으로 지체가 낮은 아전의 딸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수절과부와 박씨의 사연이 전개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단 (나)와 (다)는 모두 일종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런데 수절과부는 일종의 독백에 가까운 고백의 형식으로 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반면 박씨는 이미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의 대화, 곧 고을 원과 아전의 문답을 통해 그 삶이 재구성되고 있다. 수절과부의 절절하면서도 인상적인 고백은 다음과 같다.

“이것이 네 어미를 죽지 않게 한 부적이다. 십년동안 손으로 만져서 다 닳아버렸다. 대저 인간의 혈기(血氣)는 음양(陰陽)에 뿌리를 두고 있고 정욕은 혈기에 모이는 것이며, 그리움은 고독에서 생기고, 슬픔은 그리움에서 생기는 것이다. 과부는 쓸쓸히 지내며, 슬픔이 지극한 사람이지만, 혈기가 왕성해지는 때면 과부라고해서 어찌 정이 생기지 않겠느냐? 희미한 불빛 아래 그림자를 벗 삼아 외로운 밤엔 날조차 쉬 밝지 않는데 거기다 처마에 빗방울이 푹푹 떨어지거나, 창으로 달빛이 하얗게 흘러들거나, 나뭇잎 하나가 뜰에 나부끼거나, 외기러기가 하늘에서 울거나, 먼데서 닭 우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고 어린 여종의 코고는 소리만 요란한데 말뚱말뚱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 괴로운 마음을 누구에게 호소하겠느냐? 그럴 때면 나는 이 동전을 꺼내어 굴리면서 방 안에서 두루 문질러지게 했다. 등글어 잘 굴러가다가도 모퉁이를 만나면 멈추고, 그러면 내가 찾아서 다시 굴리고, 그렇게 밤마다 대어섯 번을 굴리고 나면 그제야 하늘이 밝아오더구나. 과부가 된 후 십년 동안 해마다 동전을 굴리는 밤이 줄었고, 십년이 지나고 나서는 다섯 밤에 한 번이나 열 밤에 한 번씩 굴리다가 이젠 혈기가 쇠하여 더 이상 이 동전을 굴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가 이것을 열 겹으로 싸서 소중한 간직하기를 이십여 년이나 한 것은 동전의 공로를 잊지 않고 때때로 스스로 경계하는 바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다.”<sup>16)</sup>

위의 내용은 기왕에도 많이 인용된 부분으로 잠 못 드는 젊은 과부의 고통과 욕망의 추이를 서술한 것이다. 연암은 ‘혈기가 왕성해지는 때면’이라고 하여 과부의 고뇌가 심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희미한 불빛’, ‘처마에 빗방울’, ‘하얀 달빛’, ‘뜰에 나부끼는 나뭇잎 하나’, ‘외기러기 울음소리’ 등은 대개 외로움이나 슬픔 등의 정서적인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속에 은밀한 정욕의 이미지도 또한 숨기고 있다. 이 대목의 가치는 과부에게도 정욕이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 특히 과부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연암은 자연물의 이미지를 통해 욕망을 간접적으로 형상화하고 그것을 억누르는 과정을 동전을 꺼내어 굴리는 장면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기술하여 독자가 과부의 욕망에 공감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만든다.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과부의 욕망을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하여 정욕을 참으며 밤새 동전을 굴리는 자칫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한밤의 놀이는 한없이 슬프고 처절한 장면으로 그려진다.<sup>17)</sup>

반면 박씨를 서술하는 방식은 서술의 내용에 국한해서 보자면 2장의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철저하게 금욕적이고 규범적인 열녀전의 전통에 입각해 있다. 박씨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오로지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수절과부가 생동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욕성을 들려주고 있다면 박씨는 다른 사람의 말로 남아있을 뿐이다. (다)에서 박씨의 행적에 대한 규범적 기술이 아

16) “此汝母忍死符也。十年手摸，磨之盡矣。大抵人之血氣根於陰陽，情欲鍾於血氣，思想生於幽獨，傷悲因於思想。寡婦者，幽獨之處而傷悲之至也，血氣有時而旺，則寧或寡婦而無情哉？殘燈吊影，獨夜難曉，若復簷雨淋鈴，窓月流素，一葉飄庭，隻雁叫天，遠鷄無響，穉婢牢騷，耿耿不寐，訴誰苦衷？吾出此錢而轉之，遍模室中，圓者善走，遇域則止，吾索而復轉，夜常五六轉，天亦曙矣。十年之間，歲減其數，十年以後，則或五夜一轉，或十夜一轉，血氣既衰而吾不復轉此錢矣。然吾猶十襲而藏之者二十餘年，所以不忘其功而時有所自警也。”

17) 『연암재가』와 『백척오동각집』에는 과부의 토로에 “한 편(肩平)이 붙어 있다. 과부의 고백의 절실함과 해당 부분의 독립적인 성격을 적절히 지적한 평이라 하겠다.

전들의 전언을 통해 이루어지는 장면은 (나)에서 수절과부가 자신의 목소리로 금기시되는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과 대비됨으로써 박씨의 죽음을 얼마간 모호한 것으로 만든다.

한편 (나)의 첫머리에서 수절과부는 행실이 나쁜 것으로 소문난 과부의 자식을 청직(淸職)에서 배제하려는 두 아들의 논의를 듣고 규방의 일을 어떻게 알고 그런 논의를 하느냐고 묻는다. 이에 아들은 “풍문에 들었다”(風聞也)고 답한다. 이에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람이라는 것은 소리는 있지만 형체가 없어 눈으로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나 만물을 떠돌게 하는 것이다. 어찌 형체도 없는 일을 가지고 떠도는 것들 가운데서 사람을 논하는 것이냐?(…)”<sup>18)</sup>

이 때 ‘風聞’ 또는 ‘風’이라는 글자는 과부를 둘러싼 사람들의 담론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풍문은 은밀한 규방의 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진실과는 다를 수 있다. 수절과부는 장성한 아들 앞에서의 처절한 고백을 통해 이 사실을 입증한다. 수절과부는 높은 관직에 있는 두 아들의 모친으로 고결한 여성으로만 보였을 터인데 실은 밤마다 정욕을 누르는 고통을 견뎌왔던 것이니, 이 여성에 대한 세간의 평가도 풍문이라면 풍문일 것이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고 아들과 어머니가 붙들고 울었다는 데서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고통을 전연 짐작하지 못하고 금욕적인 겉모습만 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곧 풍문과 실체가 달랐던 것이며, 연암은 이를 통해 아들도 모르는 과부의 진실을 남이 알 수 있겠느냐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알기 어렵지만 일단 글의 성격은 매우 ‘허구적’이다. ‘허구적’이라 함은 사실에 입각하여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실의 존재 가능성이나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유통되었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욕에 괴로워하는 과부의 정황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연암 특유의 감각적 필치가 두드러지긴 하지만 이 삽화를 전적으로 연암의 상상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 또한 어렵다. 당시 향간에는 수절과부의 고통을 동정심에서든 호기심에서든 이야기거리로 삼는 경우가 없지 않았을 것이며,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나)와 같은 소문들, 곧 누구네 대감의 모친이 그랬다더라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을 것이다. 연암은 그런 이야기에서 열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취해 서에 삽입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sup>19)</sup>

다시 말해 연암은 이웃과 조정에서 칭송해 마지않는 열녀의 모습은 외면적인 것일 뿐으로 규방 과부의 은밀한 진실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속마음을 알아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인 혹은 전의 작가인 남성이 과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과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연암은 수절과부의 고백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런 장(場)을 마련하였고, 과부는 ‘정답’을 말하지 않고 뜻밖에 지난날의 욕정을 토로함으로써 이야기는 적이 충격적이며 진실한 울림을 가지게 되었다.

과부의 고백은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함양 박씨의 고통과 슬픔을 짐작케 하는 잣대가 된다. 현달한 아들의 봉양을 받는 양반택 과부의 삶의 이러하거늘 하층 과부의 삶은 어떠했을 것인가. 연암이 권위적 서술자로서 박씨의 전을 기술하지 않고 전언의 형식으로 기술한 것은 이러한 점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연암이 논찬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더 구체화 될 수 있다.

18) “風者, 有聲而無形也, 目視之而無覩也, 手執之而無獲也, 從空而起, 能使萬物浮動. 奈何以無形之事, 論人於浮動之中乎?”

19) 김명호, 『燕巖의 현실인식과 傳의 변모양상』, 임형택·최원식 편,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비평사, 1985, 81면에서는 이 부분을 구전 설화를 소재로 한 것이라고 보았다.

얼마 후 함양군수 윤광석(尹光碩)이 밤에 이상한 꿈을 꾸고 감동하여 「열부전」(烈婦傳)을 지었고 산청현감 이면재(李勉齋)도 이 여인을 입전하였다. 거창의 신돈항(愼敦恒)은 주견이 뚜렷한 선비인데 박씨를 위하여 찬술하였다. 그 절의의 시종(始終)을 생각해본다면 어찌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오랫동안 세상에 머물러 내내 친척이 한탄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바가 되고 이웃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것보다 한 몸이 빨리 사라지는 것이 낫다는 마음이 아니었겠는가?<sup>20)</sup>

연암은 박씨를 입전한 다른 문인들의 이름을 든 후 박씨가 죽음을 택한 진정한 이유를 나름대로 짐작해 본다. 연암은 박씨가 죽음을 택한 이유가 계속 과부로 살면서 친척의 동정을 받고, 부정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웃의 의심을 사는 것이 두려워서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적어도 남편을 따라 빨리 죽고 싶다는 마음이 전부는 아니었으리라는 것이다. (가)의 표현을 빌자면 “남편을 따라 죽어 묻히고자 하여 물에 몸을 던지고, 불에 뛰어들고, 짐독(鴆毒)을 마시고, 목을 매기를 마치 천국에 가는 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전의 이야기나 다른 사대부들의 전(傳)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박씨의 진실이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연암은 이렇게 슬그머니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은 연암이 박씨의 유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에서도 확인된다. 윤광석, 이면재, 신돈항 등의 문인들은 박씨를 입전한 전에서 공히 유서(遺書)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유서는 다소간 출입이 있으나 ‘바로 남편을 따라 죽고자 했으나 상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 대상(大祥)을 마치고 죽는다. 살아서 같은 방을 쓰지 못했으니 죽어 같은 뒹자리에 묻히고 싶다’ 라는 것이 대략의 내용이다.<sup>21)</sup> 연암은 세 문인의 글을 모두 읽고 「열녀함양박씨전」을 집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서의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다른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열녀함양박씨전」의 명목상의 주인공은 박씨이지만 박씨에 대한 이해는 결국 수절과부와의 연관을 통해서만 적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수절과부의 일화는 박씨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보완하며 박씨의 존재와 죽음의 의미를 드러내는 대비적인 짝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연암은 신분과 생사를 달리하는 두 열녀의 형상을 대비함으로써 박씨의 죽음의 의미, 나아가 열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sup>22)</sup>

## 2) 열(烈)을 보는 시각

그렇다면 연암은 열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열녀함양박씨전」의 세 부분 가운데 (가)는 (나)와 (다)의 후반부 논찬이 의론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의론적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선 이 단락에 열녀 내지 열녀 풍습을 바라보는 연암의 시각이 비교적 분명하게 담겨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제(齊) 나라 사람 말에 “열녀(烈女)는 남편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시경』(詩經)의 「백주」(柏舟)도 그런

20) 旣而咸陽郡守尹侯光碩，夜得異夢，感而作「烈婦傳」，而山淸縣監李侯勉齋，亦爲之立傳。居昌愼敦恒，立言士也，爲朴氏撰。次其節義始終，其心豈不曰弱齡嫠婦之久留於世，長爲親戚之所嗟憐，未免隣里之所妄村，不如速無此身也。

21) 단국대 소장 『류상곡수정집』(流觴曲水亭集) 곤(坤)에 윤광석(尹光碩)의 「열부박씨전」(烈婦朴氏傳), 이면재(李勉齋)의 「박열부전」(朴烈婦傳), 신돈항(愼敦恒)의 「열부박씨행록」(烈婦朴氏行錄) 등이 실려 있다. 이들 작품의 개요에 대해서는 김현조, 「燕巖의 <烈女咸陽朴氏傳> 再考」, 대동한문학 제24집, 대동한문학회, 2006, 참조. 당시 함양 군수로 있으면서 박씨의 유서를 직접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 윤광석의 글에 실린 박씨의 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旣喪予美之後，卽欲從殉，而無人守喪。故未亡至此以待夫祥之終，生未同室，死則同穴。”

22) 박기석, 앞의 글, 359면에 두 열녀담을 대비시켜 놓는 서술방식을 통해 잘못된 열녀 풍조를 비판하고 있다는 간단한 언급이 있다.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전에서는 개가(改嫁)한 여인의 자손은 정직(正職)에 등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어찌 술한 무지한 백성들을 두고 만든 법이겠는가? 지금 조선 4백년 이래로 백성들이 이미 오랜 교화에 씻기워 여자의 신분이 귀하건 천하건, 일족(一族)이 쇠미하건 번창하건 간에 과부가 되면 수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마침내 이것이 풍속이 되었다. 옛날의 소위 열녀는 오늘날의 과부에 해당하는 것이다.<sup>23)</sup>

인용한 부분은 「열녀함양박씨전」의 첫 부분, 곧 (가)의 첫 부분이다. 남편을 바꾸지 않는 것, 즉 죽을 때까지 일부종사하거나 남편이 죽더라도 개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열(烈)이라고 여기던 중국의 옛 풍속이 조선에서는 열녀가 아니면 자손이 정직(正職: 文武 양반의 정직 벼슬)에 등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었고, 그 풍속이 일반 백성에게까지 퍼졌다는 내용이다. 인용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날 흔하디흔한 이 과부들이 예전에는 모두 열녀로 칭송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열녀나 열녀 풍속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읽어내는 것은 다소 무리다.<sup>24)</sup> 물론 (가)의 내용에서 열녀에 대한 풍속이 법제화 되고 그것이 전 계층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읽어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가)가 충분히 의론의 개진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암의 논의가 가령 정약용이 「열부론」(烈婦論)에서 행한 것과 같은 정면 비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sup>25)</sup>

연암은 열녀풍속이 각박하고 우려할 만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풍속이나 제도를 교정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재가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거나, 국가에서 정려(旌閭)를 통해 과부의 죽음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오히려 연암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것은 미세하긴 하나 인간적인 연민이며, ‘과부가 굳이 순절을 택한다면 그것을 열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괴롭고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정도의 태도이다.

요컨대 (가)에는 열녀 풍속에 대해 뚜렷한 견해가 개진되어 있다기보다는 심정적인 우려와 안타까움이 자연 상태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 개혁가의 그것이 아닌, 기본적인 인간애를 가진 인간의 아주 현실적인 태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의 내용은 문면 그대로 ‘과부가 순절을 하거나 하층 여성까지 수절 내지 순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암의 이러한 입장은 (나)와 (다)에서도 계속 견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여성 모두를 열녀로 칭송하고 있는 (나)와 (다)의 논찬부를 통해 이런 점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① 군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은 가히 열녀라고 할 만하다.” 아! 그 곤경에 굴하지 않는 절개와 깨끗한 몸가짐이 이와 같건만 당시에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열녀의 이름이 문혀 전하지 않는 것은 어찌

23) 齊人有言曰：“烈女不更二夫。”如「詩」之「柏舟」，是也。然而國典，改嫁子孫，勿叙正職，此豈爲庶姓黎氓而設哉？乃國朝四百年來，百姓既沐久道之化，則女無貴賤，族無微顯，莫不守寡，遂以成俗。古之所稱烈女，今之所在寡婦也。

24) 연암의 다른 글을 보아도 「김유인사상」(金儒人事狀)에 중국의 옛 여성을 예로 들어 몸을 훼손하고 목숨을 끊는 행위를 완곡하게 비판한 내용이 있을 뿐, 46세 무렵에 쓴 「이열부사상」(李烈婦事狀), 47세 무렵에 쓴 「열부이씨정려음기」(烈婦李氏旌閭陰記), 「박열부사상」(朴烈婦事狀) 등에서는 열녀 풍속에 대한 비판을 찾기 어렵다.

25) 순절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순절 풍속에 대해 정약용이 박지원에 비해 보다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열부론」 전체를 통해 볼 때 정약용의 입장 또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해둔다: “나는 힘주어 말한다. ‘제 몸을 죽이는 것은 천하에 흉한 것이다. 제 몸을 죽이는 것이 이미 의(義)에 합당한 행동일 수가 없으니, 이것은 한갓 천하에 흉한 짓을 했을 뿐이다. 한갓 천하에 흉한 짓을 한 것이건만 백성의 위사람이 되어서 그 죽음을 찬양하여 문 옆에 대(臺)를 세우고, 패목(牌木)을 붉게 칠해 표시하며, 호세(戶稅)를 면제해 주고, 자손의 부역을 덜어주니, 이것은 백성들이 서로 부러워하고 본받아서 천하에 흉한 짓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어찌 옳단 말인가?’”(吾固曰：殺其身，天下之凶也。既不能殺其身當於義，則是徒爲天下之凶而已。是徒爲天下之凶者，而爲民上者，且爲之緝其楔，丹其榜，復其戶，其子若孫繇役，是勸其民相慕效爲天下之凶也。惡乎可哉?) (『茶山詩文集』 권11)

서인가? 과부가 절의(節義)를 지키는 것이 온 나라에 보통 일이 되어 한 번 죽지 않고서는 과부들 가운데 높은 절개로 두드러질 수 없기 때문이다.<sup>26)</sup>

② 아이! 성복(成服)하는 날 차마 죽지 않은 것은 장사가 남아있기 때문이었고 장사를 지내고도 죽지 않은 것은 소상(小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상이 끝나고도 죽지 않은 것은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고 대상을 끝내자 상기(喪期)가 다하였으므로 남편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어 마침내 처음의 뜻을 이룬 것이다. 이 어찌 열이 아니겠는가?<sup>27)</sup>

①은 수절과부에 대한 논평이고 ②는 박씨에 대한 논평이다. ①에서 이 수절과부를 새삼 열녀라고 할 만하다고 한 까닭은 (가)의 논리와 간접적으로 통한다. 과부의 수절이 보편화되어 죽음으로 절의를 보이지 않으면 열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수절과부의 정욕을 억누르기 위한 내면의 고통과 인내를 보니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다. 한편 ②의 내용은 (다)의 마지막 부분이자 작품 전체의 말미인데 박씨의 열행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다소 구태의연해 보인다. 여기서 죽음을 지연하며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행한 후에 목숨을 끊은 행위를 ‘처음의 뜻을 이룬 것’으로 지칭하고 있는바, 연암은 처음 맺은 혼인의 약조를 어기지 않고 남편이 죽은 후에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목숨을 끊은 박씨의 행위를 얼마간 긍정적인 태도로 보고 있다.

연암은 ‘신’(信)이라는 덕목을 매우 중요시 했던바 짐작건대 박씨가 혼인 약속을 지키고 끝내 남편에 대한 신의를 지킨 태도를 높이 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점 역시 수절(守節)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가)의 입장과 통하는데, 실제 연암이 아내 사후 만년까지 홀로 지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암은 여성의 개가(改嫁)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었으며, 특히 신의의 준수라는 관점에서 열녀의 수절이나 순절을 부분적으로 긍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박씨에 대해 “이 어찌 열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마지막 구절 역시 일단 문면의 의미 그대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sup>28)</sup> 다만 이 구절은 어느 정도 (가)의 마지막 구절, 즉 “(순절도) 열이라면 열이겠지만, 어찌 지나친 것이 아니겠는가”(烈則烈矣, 豈非過歟?)라는 구절의 의미를 염두에 두어 순절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와 (다)가 주제에 있어 표면적으로 대비되는 것은 (나)에서는 정욕을 억누르는 과부의 고통이 두드러지고, (다)에서는 여러 사람의 전언을 통해 박씨의 열행에 대한 칭송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두 여성에 대해 깊은 연민과 그들의 열에 대한 인정이다.

그렇다면 다시 본전에 해당하는 (나) 및 (다)와 서에 해당하는 (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절과부와 박씨, 두 열녀의 이야기는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상호보완적으로 읽히며 열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이는 과부의 순절이나 하층 여성의 수절 내지 순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가)의 태도와 조응한다. 순절을 하지 않았지만 열녀라 할 만한 사람이 수절과부요, 택하지 않아도 좋았을 죽음을 택한 것이 박씨였던 것이다. 달리 말해 (나)와 (다)는 (가)에서 개진한 일반론의 개별적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박씨의 죽음을 계기로 촉발된 열녀에 대한 문제의식이 수절과부 이야기를 통해 보완되고 서를 통해 하나의 입론으로 긴장감 있게 제시된 것이다.<sup>29)</sup>

26) 君子聞之曰：“是可謂烈女矣。”噫! 其苦節清修若此也，無以表見於當世，名堙沒而不傳，何也? 寡婦之守義，乃通國之常經，故微一死，無以見殊節於寡婦之門。

27) 噫! 成服而忍死者，爲有窳窳也。既葬而忍死者，爲有小祥也。小祥而忍死者，爲有大祥也。既大祥則喪期盡，而同日同時之殉，竟遂其初志，豈非烈也?

28) 김철조, 앞의 책, 312~325면; 박기석, 앞의 글, 36면에서는 이 구절을 각각 반어적 성격을 가진 말과 현실적 제약을 의식한 말로 해석하였다.

29) 김철조, 앞의 책, 323면에서는 연암이 박씨의 이야기를 다룬 것은 순절(殉節)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탁”(假託)의 구조로 드러낸 것일

#### 4. 맺음말

「열녀함양박씨전」은 열녀에 대해 기존의 열녀전과는 다른 차원의 관심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서와 본전이 표면적으로 어긋나 보이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서와 본전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 ‘유보적인 비판’이라 이름할 수 있는, 열녀 풍속에 대한 연암의 태도를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열녀에 대해 말하기에 그치지 않고 수절과부의 진솔한 목소리에 연민 어린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열녀로 하여금 말하게 하여 박씨의 절사(節死)를 새롭게 의미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으로서의 내외적 형식의 창신과 관련되어 있는바 연암은 서의 도입과 본전 자체의 새로운 구성을 통해 본전의 의미를 확충하고 작품을 외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열녀함양박씨전」은 연암의 다른 전들에 비해 규범적인 틀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글이 보여주는 전으로서의 창신이나 과부의 내면에 대한 관심은 범상하게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연암이 대표적으로 그의 전을 통해, 또 다양한 산문을 통해 보여준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 대한 꾀진한 묘사는 전통시대의 소수자 집단 가운데 하나였던 여성의 ‘소수성’을 조망하는 데는 다소 인색했다. 그러나 연암은 「열녀함양박씨전」을 통해 만년의 깊고 넓어진 안목을 여성의 내면으로까지 확장해가고 있다. 특이한 지점은 연암의 이런 태도가 열녀의 내면에 대한 조명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른 과부의 고통과 슬픔은 무엇인가’라는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열녀전들이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시각으로, ‘작자의 열에 대한 관점’이라는 단순한 구도로만은 포착할 수 없는 부분이다.

뽀 실은 박씨을 입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즉 (가), (나)로 지칭한 부분에만 주제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박씨의 죽음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열에 대한 연암의 문제의식을 전면화시켰다는 본고의 주장과 약간 통하기는 하지만 두 열녀의 이야기가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서와 긴밀한 조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본고의 견해와 배치된다.

참고문헌

- 이가원, 「〈烈女咸陽朴氏傳〉研究」, 『燕巖小說研究』, 을유문화사, 1965.
- 성현경, 「〈烈女咸陽朴氏傳〉과 〈烈女咸陽朴氏傳 并序〉의 構成」, 『韓國古典散文研究』, 동화문화사, 1981.
- 김명호, 「燕巖의 현실인식과 傳의 변모양상」, 임형택·최원식 편,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비평사, 1985.
- 박기석, 「〈烈女咸陽朴氏傳〉 研究」, 『국어교육』 111집, 국어교육학회, 1993.
-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 박일용, 「〈烈女咸陽朴氏傳 并序〉의 형상화 방식과 그 장르적 성격」, 양포이상택교수환력기념논총간행회, 『한국고전 소설과 서사문학』, 집문당, 1998.
- 설성경, 「〈烈女咸陽朴氏傳 并序〉의 구조」, 『고소설 연구』2, 태학사, 1998.
- 김철조, 『박지원의 산문문학』,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 김철조, 「燕巖의 〈烈女咸陽朴氏傳〉 再考」, 『대동한문학』 제24집, 대동한문학회, 2006.

## The Study on Yeleohamyangparksigeon

Choi, jinyeō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close relation between main idea and formal features of Yeleohamyangparksigeon 烈女咸陽朴氏傳, written by Park Ji Won 朴趾源(1737~1805). A preface and main biography which is consist of two virtuous women's story constitutes Yeleohamyangparksigeon. Superficially three parts look contradictory, the first criticize excessive dying of the women, especially in lower class, in defense of her husband's chastity, the second introduces the anecdote of a old woman maintained her faithfulness to her husband in spite of her sensual desire and the third praises dead woman in lower class died for her nominal husband after holding his funeral.

Preceding researches understood the main idea of the work is in the first or second and the third is just the gate to the first and the second. In their place Park Ji Won assumed critical attitude to the customs of virtuous woman, in consequence the application of the preface which is rare to the prose and the title role is almost meaningless. But the attitude to the customs of virtuous woman of Park Ji Won is explicitly displayed in the preface, that is he affirmed the faithfulness of the higher class women but criticized self destruction of higher class women and the faithfulness of the lower class women. The former message is presented in the third, the latter in the second. Also the contrast of two women's story helps understanding the real inside of virtuous woman in Ch ōsun-Dynasty.

Key Words: Yeleohamyangparksigeon 烈女咸陽朴氏傳, Yeon-am 燕巖 Park Ji Won 朴趾源, virtuous woman, preface, main biography, attitude to the customs of virtuous woman